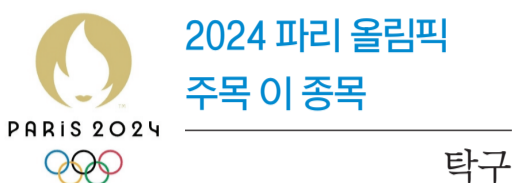


남북 탁구 올림픽서 재회...선의의 경쟁 펼친다



북한, 리우 이어 8년만의 올림픽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한국 승
남북, 같은 공간서 훈련 진풍경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두고 경쟁하는 우리나라와 북한 탁구 대표팀이 한 공간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한국 탁구 대표팀은 22일(현지시간) 오후 3시께부터 프랑스 파리의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 마련된 탁구 경기장에서 훈련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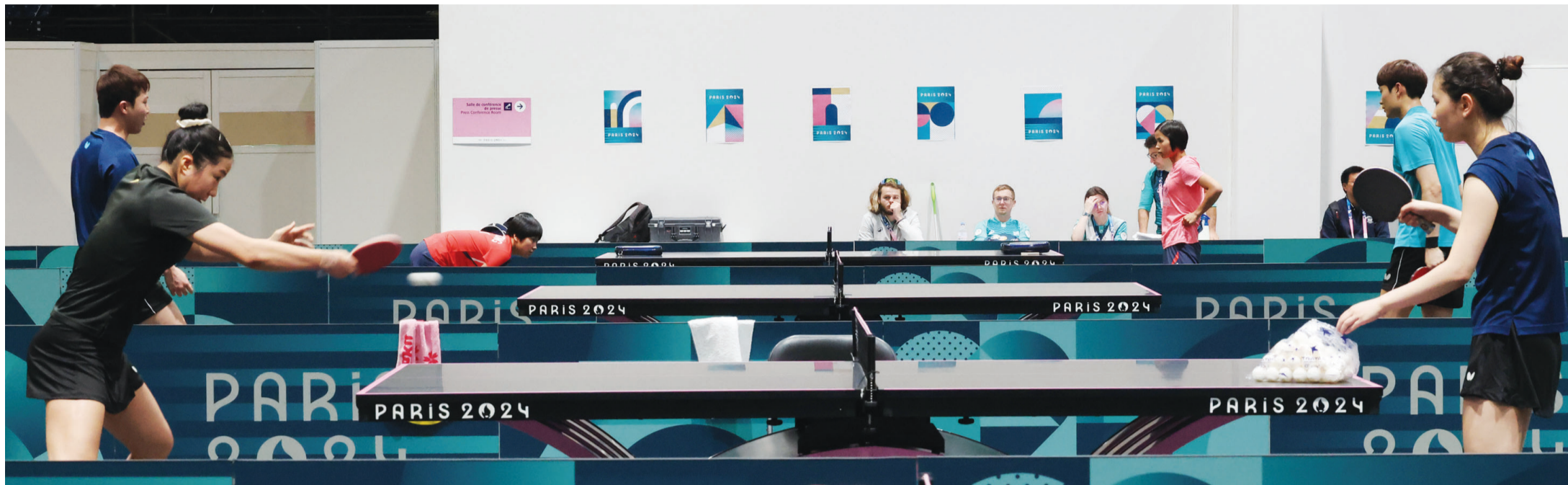
신유빈(대한항공), 임중훈(한국거래소) 등 선수들이 몸을 풀고 랠리를 주고받는 가운데 갑자기 북한 선수들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나라보다 40분가량 늦게 경기장에 나타난 북한은 바로 옆 탁구대를 써서 곧 훈련을 시작했다. 하필 현장에 다른 나라 선수단이 없었던 만큼 훈련장을 남북 선수들만 사용하는 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우리나라와 북한 선수를 모두 서로를 의식하기보다는 각자 훈련에 집중하면서 양 대표팀 사이에서 특별한 긴장감이 형성되지는 않았다.

김경영은 훈련 환경과 현재 컨디션에 만족하는지 환한 미소를 지어보기도 했다.

다만 북한 선수들은 훈련 도중에 갑자기 바로 옆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쳐다봤다.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 마련된 탁구 경기장에서 남북 대표팀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공식 정보 사이트 마인포에 따르면 북한은 7개 종목에서 16명을 출전 선수로 등록했다.

강세 종목인 레슬링에서 가장 많은 5명이 나온다. 탁구는 3명이다. 그 외 수영 다이빙 3명, 복싱 2명, 체조·육상·유도에서 1명이다.

전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을 통해 프랑스에 입국한 북한 탁구 대표팀은 이날 처음으로 현지에서 훈련했다.

북한이 올림픽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이후 8년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 선수들이

보내지 않은 북한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징계가 풀리면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지위를 되찾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5년 만에 국제 스포츠 무대에 복귀했다.

당시 차수영-박수경 조로 여자 복싱에 나선 북한은 결승까지 진출, 우리나라의 신유빈-전지희(미래셋증권) 조와 만났다.

1990년 베이징 대회 이후 33년 만에 성사된 아시안게임 탁구 '남북 결승전'에서는 신유빈과 전지희가 금메달을 목에 걸며 우리나라가 웃었다.

/연합뉴스

육상 1차 예선 탈락해도 패자부활로 메달 도전

파리올림픽 달라지는 점

2024 파리올림픽이 이전 올림픽과 달랐던 점은 무엇일까.

이번 올림픽에서는 브레이크가 새로운 종목으로 도입돼 데뷔 무대를 치른다. 육상, 복싱, 카누, 슬라럼, 요트, 사격, 스포츠클라이밍, 아티스틱 스위밍 등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브레이크는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스포츠로 이번 대회에서 각 16명의 비보이와 비걸이 디제이의 음악에 맞춰 1대1 배틀을 펼친다.

한국에서는 비보이 네임 홍텐(Hongten), 본명 김홍철(도봉구청)이 파리 올림픽에 나선다.

이외에도 한국계 선수인 캐나다 국가대표 비보이 필립 김(Phil Wizard)과 미국 국가대표 비걸 서니 최(Sunny)가 이번 올림픽 브레이크에서 메달을 딸 유력 후보로 꼽힌다.

육상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패자부활전' 제도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마라톤으로 육상 경기가 마무리된다는 점이 눈 여겨 볼 부분이다.

이번 대회 육상 경기에서는 허들 종목을 포함해 200m에서 1500m까지 모든 개인 트랙 종목에 패자부활전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1차 예선에서 순위로 진출하지 못한 선수는 패자부활전을 통해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다.

요트에서는 파리올림픽을 통해 첫 선을 보이는 '카이트 보트'를 포함해 총 10개 종목 경기가 펼쳐

허들 포함 모든 개인 트랙 적용 女 마라톤, 올림픽 첫 '대미' 장식 비보이·비걸의 '브레이크' 첫 선

진다.

요트 윈드서핑 종목에서는 기존 보드인 'RS:X' 대신 'iQFOiL'을 선보이게 되는데, 이는 보드 밑 바닥에 수중 날개가 장착돼 수면에서 완전히 떠오른 상태로 질주한다는 특징이 있다.

아티스틱 스위밍에서는 올림픽 대회 역사상 최초로 남자가 단체 경기에 출전하고, 카누에서는 모든 급류 종목이 결합된 '익스트림 카누 슬라럼'이 처음 등장한다.

복싱에서는 남녀 체급 변화에 따라 메달 수에 변화가 있다. 남자 체급이 8개에서 7개로 감소했고, 여자 체급은 기존 5개에서 6개로 세분화 됐다.

이에 따라 남자부는 51kg, 57kg, 63.5kg, 71kg, 80kg, 92kg, +92kg 급, 여자부는 50kg, 54kg, 57kg, 60kg, 66kg, 75kg급으로 나뉘어 경기를 치른다.

사격도 세부 종목에서의 변화가 있다.

앞선 도쿄올림픽에서는 사격 종목에서 사상 최초로 올림픽 공기소총, 공기권총, 산탄총 종목에 혼성 단체 경기가 추가됐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세 가지 혼성 단체 경기

가 펼쳐지는데, 차이점은 산탄총 종목에서 트랩 혼성 단체 경기가 스킵트 혼성 단체 경기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트랩과 스킵트는 산탄총 종목의 세부종목이다. 두 종목 모두 시속 80km정도의 빠른 속력으로 비행하는 10cm 크기의 표적 '클레이'를 산탄총으로 쏘서 맞추는 방식이다.

트랩에서 사수들은 5개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사격하게 된다. 클레이의 비행 방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스킵트에서는 사수들이 8곳의 사대를 차례로 이동하며 날아가는 클레이 표적을 향해 사격한다.

스포츠 클라이밍에서는 콤파인의 세부종목이었던 스피드가 따로 분리됐다.

도쿄 대회에서는 한 선수가 볼더링, 리드, 스피드 등 세부 종목을 모두 치르는 콤파인 1개 종목만 치러졌는데, 이번 파리 대회에서는 스피드가 따로 분리되어 콤파인(볼더링+리드)과 스피드 2개 종목으로 경기가 치러진다.

볼더링은 안전 로프없이 4.5m 높이의 암벽을 한 루트 당 4분 이내에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결한 과제의 숫자로 순위가 결정된다.

리드는 15m 높이의 벽을 6분 동안 등반해 가장 높은 지점의 홀드를 찍은 선수가 승리한다.

스피드는 높이 15m의 벽을 두 선수가 동시에 올라 먼저 터치 패드를 찍은 선수가 이기는 방식으로, 보통 5초 내로 승부가 결정난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DECODING KOREA
26.07 - 25.08.2024
GRAND PALAIS IMMERSIF

Shine Together Paris, 빛을 받는다
Paris OCEANOCIDE Headquarters
2 rue Andre Pascal, 75006 Paris
Art/Para Exhibition : Sept. 2 to Sept. 11, 2024
IMAGO FORUM : Sept. 11, 2024, 13:00-16:00
Opening: Sept. 2, 2024 18h

Genun-fae and Friends of 5 Continents

'K-컬처'와 파리, 파티!

문체부, 올림픽 기간 등 9월 14일까지 현지서 공연·전시

2024 파리 하계 올림픽·패럴림픽을 다채롭게 빛낼 한국의 예술공연과 전시가 오는 9월 14일(이하 현지시간)까지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5월부터 파리와 아비뇽, 낭트 등 프랑스 전역에 걸쳐 한국 문화예술을 집중 소개하고 있는 '코리아시즌'의 순환을 이어가기 위함으로, 총 1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과 한국의 미디어아트·공예 전시 등이 열린다.

국립현대무용단이 올림픽 개막에 앞서 23일에 이어 24일 이틀간 파리 13구 극장에서 '정글' 공연을 한다. '정글'은 김성용 국립현대무용단 단장 겸 예술감독이 2023년 단장 부임 후 첫선을 보인 안무작으로 지난해 초연 당시 전석 매진 기록을 세웠다.

한국 작가들의 미디어아트 전시인 '디코딩 코리아'는 올림픽 개막날인 26일부터 한 달간 선보인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예술·문화·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하고 한국 사회를 다각도로 탐구해 한국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선보일 이번 전시

는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열린다.

오는 28-29일 파리 코리아하우스 대극장에서는 국립발레단의 스페셜 갈라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국립발레단은 클래식 발레와 발레-국악이 조화를 이룬 창작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세계 장에 예술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작품도 전시된다.

공정하고 차별없는 스포츠 활동의 가치를 담고 있는 패럴림픽의 정신에 따라 9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아트파라' 전시를 통해 5대륙 30개국 발달장애 화가 80명의 작품 100여 점과 '2020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받은 김근태 발달장애 화가의 작품 25점이 한 데 모인다. 전시는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이뤄진다.

한편 제33회 파리 올림픽은 오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18일간 치러지며,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왜? 5경기 3홈런 최원준, NC전 선발 라인업 빠졌나

이범호 감독 "상대 성적 따라·체력 안배 차원...NC에 강한 이창진 투입"



KIA가 맞춤형 기용으로 뜨거운 타격을 이어간다.

지난 21일 한화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6연승을 찍었던 KIA 타이거즈는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NC 다이노스와 시즌 9번째 만남을 가졌다.

이날 라인업에서 눈에 띄는 자리는 '2번'이었다. 소크라테스를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내세운 이범호 감독은 이창진에게 2번과 좌익수 자리를 맡겼다. 우익수 나성범은 5번 타자로 투입됐다.

이창진이 외야 한 자리에 들어서면서 최근 좋은 타격감을 보였던 최원준(사진)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최원준은 지난주 5경기에서 7개의 안타를 기록하면서 0.333의 타율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3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넘기면서 자신의 개인 한 시즌 최다홈런 기록을 4에서 7로 갱신하기도 했다.

또 3개의 볼넷도 골라내며 공격의 흐름을 이었다. 21일 한화전에서도 5-7로 뒤진 9회초 김도영의 대타 안타에 이어 볼넷을 얻어내면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린 최원준은 최형우의 역전 스리런으로 홈에 들어와 득점을 추가하기도 했다.

지난주 연승의 주역이었던 최원준을 이날 스타팅

라인업에서 제외된 것은 이범호 감독의 큰 그림이다. 이범호 감독은 이날 라인업에 대해 "최원준이 경기를 많이 뛰었고, NC 카스타노 불을 잘 못 켜다. 최원준을 빼줄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 카스타노가 좌타자에게 까다롭게 던지는 유형이기도 하다"며 "이창진이 NC전에 강하기도 하다"고 최원준에게 휴식을 주고 이창진을 투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밀한 라인업 구성으로 팀 승률을 높이고 타자들의 좋은 컨디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야구는 144경기를 치르는 장기레이스다. 여름 무더위까지 찾아온 만큼 '휴식'도 중요한 전략이 된다. 적절한 휴식 타이밍을 잡는 것도 벤치의 역할이다. 이범호 감독은 "오더를 짜면서 상대 전적에 따라서 교차해서 쉬어가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지금 타

자들 컨디션이 좋다"며 "체력적으로 힘든데 경기 계속 나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빼주고, 다른 선수 넣어서 경기하는 게 팀과 개인에게도 좋다"고 말했다.

또 "8월 가면 체력적으로 소모가 있어도 나갈 상황이 많아지니까 상대전적에 따라 지금 더 조정해 주려고 한다. 틈을 찾아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타 순서 짜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범호 감독은 최원준의 최근 페이스에 대해 "자신감을 확실히 찾은 것 같다. 앞서 이야기를 해보던 타이밍이 늦었다 또 빨랐다. 어떤 공이 왔을 때 타게 보인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시즌을 보내면서 홈런도 나오고 타격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안 좋았던 공들이 잡히고 보이는 것 같다"며 "안타를 치러 나가려다 홈런이 나오고 있다. 밸런스 좋고, 타석에서 힘을 실을 수 있어서 홈런이 나온 것 같다. 컨디션이 좋아 힘을 최대한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